

# 진 리

590.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허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허무의 차원을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본질은 겸손입니다. 겸손이야말로 우리 허무를 비추고 조명하며 모든 것을 제 자리에 놓아주기 때문입니다.

591. 성모님께서 하느님을 매혹시킨 것은 그녀가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허함과 허무를 보았고 그를 절실히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녀가 받아들인 그 허무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비스런 말씀으로 가득 찬 진리의 심연이었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그 진리 안에서 쉬셨습니다. 진리와 아주 가깝다는 것은 하느님과 아주 가깝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592. 진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이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대면하려고 결심하려는 순간, 우리 삶 전체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삶입니다. 우리 전생애가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진리의 궤도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593. 참으로 진실한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진리는 같은 신비의 서로 다른 이름입니다.

594. 진리는 인간의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자유입니다.

595. 진리는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해주는 신비입니다. 진리는 단순히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진리의 신비 속에 싸여 있습니다.

그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는 마음에 거짓과 위선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요한 1, 47)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느님의 진리를 반영하는 순수하고 깨끗한 진리의 메아리가 되십시오.

596.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든지 진심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지극한 사랑으로, 마치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은 듯이, 그대에게 다가오는 진리를 소중히 끌어 안으십시오.

597. 진리는 삶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는 매우 실제적이고 강하고 또 철저합니다. 진리는 영혼 깊이 파고듭니다. 만약 충만하게 그것을 산다면, 그 자체로 건전하고 행복한 기쁨을 만들어 냅니다.

598. 주님! 제게 당신 지혜의 비밀을 알려 주소서. 그 비밀이 제 영혼 가장 깊은 구석까지 내려가게 하소서.

저의 작음의 진리와 당신의 무한한 위대하심의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599. 결코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시선, 정면으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시선...

충만하고 성숙한, 하느님의 지극히 거룩한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와 다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누더기 조각들을 수놓은 비단천 아래 숨겨 놓는 것일 뿐입니다.

600. 잘 버려진 진리의 화살이 되십시오. 그것을 그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꽂으십시오.

601. 진리는, 다른 모든 덕들과 마찬가지로 싸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처음의 결심을 굳게 지킨다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센 파도도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선 바위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거센 물결이 그를 덮치고 영원히 삼켜 버릴 듯 해도 바위는 여전히 거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한바탕 파도가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전 보다 더 부드럽고, 감미롭고 관대하게 됩니다.

602. 그대의 삶이 빛과 진리의 광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대의 말

과 행위와 미소 안에서의 진리! 형제들과 대화할 때, 도움을 줄 때, 기쁨과 애덕 안에서의 진리! 그대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종류의 견책이나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진리! 언제나 진리, 진리 안에 사십시오.

그대 삶 전체에서 진리가 물씬 풍겨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섞이지 않은 그리스도의 진리야말로 순수한 진리입니다..

603. 빛과 고요의 영역으로, 겸손의 영역으로 깊이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거기서는 모든 것이 제대로 보입니다.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 진실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

진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무 등치가 불 속에 던져지듯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604. 진리가 그대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대를 쇠신하고, 변모시키고 또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진리의 차원으로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생각보다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분이 그대의 새로운 '나'가 되어주셨기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605. 그대의 기도가 그대의 삶 위에 진리의 빛을 투사하고 온 교회가 그 빛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충만한 빛과 진리, 더 큰 사랑과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빛에 충실 합시다. 절대자이신 그분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지 맙시다.

606.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현존으로 가득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부드러운 손길이 그와 함께 할 때 나는 충만한 진리를 살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지나가신 투명한 유리와도 같습니다. 이 유리를 통해 그분을 바라보고 관조하고 찬미하며 흠송합니다.

607. "진리가 무엇인가?"(요한 18, 38),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진리를 대면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원했다라면,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셨듯이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진리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영원한 선물로 주셨을 텐데 말입니다. 성녀 카타리나가 하느님께 물었을 때, 그분은 시나이 산에서 들려왔던 저 신비스런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있는 나다"(창세 3,14)

나는 존재이다. 그리고 너는 "존재하지 않는 자"이다. (전기 10장). 이것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두 개의 거대한 축입니다. 존재와 비존재의 만남! 이것이 진리의 든든한 두 기둥입니다.

608. 거기 성삼의 영역 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금새 피었다 사라져버리는 허구적인 우리의 생명과는 다릅니다. 거기 하느님의 신비, 그 생명의 중심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사랑의 심부에는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609. 진리는 사물을 판단하는 정확한 척도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척도로서, 존재하다 사라지고, 태어나서 죽는 그런 사물들을 재는 척도가 아니라, 한결같고 영원한 것을 재는 척도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빛을 소유한 영혼은 언제나 자기 자신은 엄격하게, 다른 이들은 깊은 자애로 대합니다.

610. 인생에는 상대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 자체이시고, 영원히 변함 없는 진리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며 영혼이 갈구하는 본질적인 '진리'를 이끌어 내십니다.

611. 자신을 하느님의 영원한 뜻으로 채우는 이는 언제나 충만한 진리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612. 좋으신 하느님께서 시에나의 독수리 성녀 카타리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당신 자신을 넘치도록 내어 주고 싶어하십니다. 문제는 그분께서 당신을 내어주실 때, 너무도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당신의 깊은 진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 온전한 진리를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자기를 의심하는 대신 하느님을 의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는다고 그분께 탓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미 갖고 있는 보물을 아쉬워하다 그것마저 놓쳐 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느님의 신비 앞에 이치

에 맞는 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13. 진리... 진리가 없는 곳에는 진리를 심고 이미 존재하는 진리는 변형시키지 않는 견고한 진리! 하느님의 진리는 생명이요, 견고한 바위이며 시간 안에 맞보는 영원한 감동입니다

614. 그대의 삶이 진실되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기쁨, 그대의 사랑, 그대의 기도, 그대의 헌신이 진실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가 되십시오.

615. 진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그대를 자유롭게 하고, 그대의 발걸음을 든든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대의 삶에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고 하느님의 영원하신 뜻을 전해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 다가오는 진리 안에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영혼 안에 진리가 이루어내는 첫 번째 업적은 영혼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시켜 그 안에 하느님 나라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마태 6, 10) 결코 나의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이...!

616. 영혼이 자신의 허무를 인식하면 할수록 진리에 대한 갈망은 커져가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교정사항들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선하고 온유할수록 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그분의 선함과 온유, 겸손을 본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617. 당신을 위해 제 영혼의 문을 열어놓았으니, 주님, 들어오소서. 그리고 저를 당신의 깊은 심연으로 데려가 주소서. 그곳은 순수함과 자유의 지역, 모든 것이 진리인 곳입니다.

저의 삶이 당신의 영원한 진리의 메아리가 되어, 형제들과 온 세상을 위한 진리의 외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것이 진리인 그 침묵의 심연으로 저를 이끌어 데려가 주소서.

618. 진실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연적인 것들이 아닌 본질적인 것들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진리이신 하느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십시오.

619.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대 삶으로 진리를 왜곡하여 그분의 모상을 일그러뜨리지 마십시오. 그대 영혼의 모든 것이 진리의 음률을 지니기 바랍니다.

620. 순수한 진리를 목말라하고 끝없는 진리의 심연에서 마시십시오. 그 심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친히 "나는 진리이다"(요한 14, 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21. 사랑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은, 비록 수없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모두 진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 존재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622. 삶의 모든 영역을 '진리'에 맞추어 나가십시오. 그대의 하루



전체가 진리에 대한 설명이고, 주석이며, 찬가가 되게 하십시오.  
그대의 행위와 시선, 그대의 미소, 그대의 삶 전체를 투명하게  
하십시오.

623. 진리는 매우 요구적이고,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기쁨과 일치를 요구합니다. 자기 이탈의 기쁨, 자신의 관심사를 잊은 채 오직 공동체의 선만을 생각하는 견고한 기쁨을 요구합니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 계시는 하느님의 신비입니다.

624. 하느님의 본질은 진리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진리, 은밀한 행복을 만들어 내는 진리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진리이며 그 안에서 나누는 친교와 행복도 진리입니다. 참으로 맛깔지고 심오한 진리입니다. 거짓의 그림자가 전혀 없으며, 모든 것이 그리고 언제나 진리입니다.

성삼위께서는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통교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이를 위해 당신 성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역사 안에 들어오시어 자신에 대해 정의 내리신 것은 너무나 위대한 것이어서 우리는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나는 진리이다.”(요한 14,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부자가 재물을 소유하듯이, 학자가 지식을 소유하듯이 높은 차원의 진리를 소유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한... 진리 자체이십니다.

625. 충만함에 대한 갈망..., 단 한 순간도 그 고삐를 늦출 수 없습

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의 가장 심부까지 들어오고 싶어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솔직해야 합니다. 말뿐 아니라, 가장 은밀한 지향들, 나만의 숨겨진 비밀들까지도 진실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취하시고 그분의 빛으로 씻어주시어, 모든 것이 그분의 빛으로 환히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626. 하나님 눈 앞에서 숨바꼭질 해보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강렬하고 찬란하고 맑고 깨끗한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있든, 사람들 앞에 있든 똑같은 밝기로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행위의 빛은 하나님의 시선 외에 다른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627. 그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있습니까? 그대는 길을 밝히고 아름답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보다 더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지극히 아름다운 경치와 값진 선물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선 이 모든 것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야 비로소 그 모습이 드러나고 세세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온갖 아름다움은 빛 앞에 드러납니다.

628. 오, 빛! 얼마나 강렬하고 전적인 투신을 요구하는지요, 끔찍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

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참으로 신비스러울 만큼 아름답습니다.

빛을 통해 볼 때 사물들은 바뀝니다. 전혀 다른 색조를 지니게 됩니다.

629. 빛... 빛... 그 빛이 하느님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예, 하느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이는 걸려 넘어 지지도 어둠 속을 걸지도 아니합니다.

630. 빛은 매번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 빛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습니다니까? 그 빛에 응답하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넓고도 관대한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봉헌된 영혼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해 존재합니다. 모두가 그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교회에 속해 있기에 전 인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살아가십시오.

그대의 눈을 빛으로 들어올려 그대에게 다가오는 형제들의 지평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관대하게 응답하십시오.

631. 빛은 빛으로 이끕니다. 빛이 많을수록 더 많은 빛을 갈망합니다. 성령은 환히 밝히는 불이십니다. 그 빛에 충실한 것이 정상에 이르는 길입니다.

성령께 저항하는 것은 빛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입니다. 빛의 신성한 모험으로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자신을 던지십시오. 하느님은 빛 안에서 기다리십니다.

632. 빛 앞에서 좀 더 용감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요구는 참으로 큼니다. 사랑에 대해, 섬세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한계 없는 깊은 응답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점점 더 요구하십니다. 그분의 빛은 모든 것을 청하십니다...

길에서 만나는 잡동사니들에 빠져 한가하게 즐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하느님은 하느님이십니다. 전부가 아니면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633. 뜨겁게 타오르며 환히 빛나는 햇불이 되십시오. 수도원의 지붕으로부터 전 우주를 밝히는 빛을 보내십시오.

634. 하느님의 빛은 얼마나 빛나고 깨끗한지... 그 빛을 왜곡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오색으로 반짝이는 빛들에 결코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느님의 빛은 분명하고 직선적입니다. 그 빛에 용감하게 투신하십시오. 그 빛은 다른 모든 빛들보다 더 강렬합니다.

635. 그대의 빛이 꿰뚫는 듯이 강렬하고 동시에 온유하고 부드럽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를 도와주고, 포용하며, 형제들 안에 일치와 우정의 삶을 도모하는 이해심 많은 빛이라면 좋겠습니다.

636. 우리는 빛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이제는 이치에 맞

는 사람이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이가 그대에게서 사랑 받고 있음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637. 빛을 나누어줌과 동시에 사랑과 우정을 나누어 주십시오.

638. 빛은 그저 단순히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적인 불로 빛나는 하느님의 등불입니다! 하느님의 빛을 세상의 빛과 바꾸는 것과 같이 큰 배반은 또 없습니다.

빛에 충실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커다란 과제입니다.

639 하느님이 그대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빛과 기쁨,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분은 길을 뚫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빛이 그대를 뚫고 지나가도록 말하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빛에 결코 문을 닫지 마십시오. 그 빛살 하나하나에 영원한 뜻의 신비들이 들어 있습니다. 빛에게 길을 내주십시오! 눈부신 태양 광채로 빛나는 사랑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대가 열려있으면 하느님께서 그대의 삶을 빨리 그리고 쉽게 차지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막에서 중요한 것은 결단력과 용기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힘과 열정을 다해 생명을 쟁취하십시오!

640. 그분의 빛은 얼마나 강렬한지... 때때로 장님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가? 그러나 하느님의 빛 안에 장님이 되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다.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눈이 멀도록 내맡기십시오.

641. 눈을 크게 뜨고, 그대의 눈동자 속으로 하느님의 놀라운 빛이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분께서 그대를 채워주시고, 비추어 주시기를...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에는, 믿고 사랑하십시오. 언제나 사랑하십시오.

642. 겸손은 우리의 빛입니다. 겸손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하느님은 겸손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의 영원한 말씀을 하십니다.

643. 그분이 빛이시라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느님이 빛이 아니라면 그때는 그야말로 비극일 것입니다. 그분의 빛은 꺼지지 않고 앞으로도 결코 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한껏 기뻐하십시오.

그대는 빛의 딸이고 그 빛에 둘러싸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즐기십시오. 빛에 싸이면 싸일수록 바로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더 큰 장님이 될 것입니다.

644. 하느님은 우리 내면의 가장 은밀한 구석들까지 보십니다. 우리의 숨은 생각이나 숨결조차도 그분의 신적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올곧게 살아갈 때, 하느님은 당신의 빛으로 우리 영혼의 마지막 구석까지 씻어주십니다.

645. 빛은 그대 혼자가 아니라, 많은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빛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빛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646. 우리는 그대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대 기쁨과 선함과 관대함의 빛... 그 빛을 성모님의 마음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대의 삶은 찬란히 빛나는, 살아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대의 모든 행위 안에 그 빛을 반사하십시오.

647. 그대의 빛은 복음에서 나와 다시 복음으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느님의 빛으로 새롭게 충전되어야 합니다,

648. 그대의 빛은 온 세상을 위한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 먼저 그대의 발걸음과 언행, 그대의 삶 전체가 조명되어야 합니다.

진실된 겸손과 자기 잊음의 빛나고 안전한 지름길에 그대의 삶을 투신하십시오.

649.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대기를 창출하며 살아가십시오. 빛과 평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하루 또 하루 만들어가십시오.

환하고 따스한 그대의 빛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대의 삶이 언제나 다른 이들에게 편안함과 사랑을 전달해 주는지 살펴 보십시오.

650. 하느님의 빛이 시편 안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하늘로 가는 안전한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시편 아래 신비롭게 흐르는, 찬란히 빛나는 그 빛을 따라갑시다.

651. 부활의 빛과 파스카의 기쁨...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례와 서원에 따르는 요구들입니다. 하느님의 요구에 성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652. 삼위일체의 중심에는 모든 것이 빛입니다. 그 앞에 눈을 감지 마십시오. 때때로 눈이 아플 것입니다. 예. 그 엄청난 빛은 어둠 속에 잠기게 합니다. 그대의 두 눈이 다 타버릴지라도 빛 앞에서 용감 하십시오.

653. 하느님의 빛이 그대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고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빛으로 문을 여십시오. 분명히 그대의 삶이 하늘로 변모될 것입니다.

654. 그대는 사막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막의 밤하늘에 빛나는 별 빛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요! 그대 자신을 빛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대의 빛으로 다른 이들의 밤을 비추고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그대의 빛이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대 별의 뾰족한 면들은 빛이 더 멀리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다



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빛이 양보와 온화함과 사랑의 빛이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서 나와 다른 이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655. 참된 빛은 우리의 비천함에 대한 강한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 자기 인식을 거부하고, 견책을 피하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자기 잘못 앞에 경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를 빛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투사하는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겸손과 함께 모든 덕들이 자라나게 합니다.

656. 단지 새벽 여명을 보기 위해서라도 온 밤을 지새울 가치가 있습니다. 걸보기에 늘상 반복되는 새벽이지만 그 빛살은 언제나 새롭고 감동적인 경험으로 다가와 우리 작은 돛단배의 항로에 새로운 길을 밝혀줍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바로 새벽 여명입니다.

657. 그대의 미소가 어둠 속에 잠겨있는 이들을 비추는 찬란한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의 손에 활활 타오르는 햇불을 밝혀 드십시오, 그 불이 결코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밝게 빛나십시오!

그대의 빛이 언제나 빛이기를...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들에 대해, 영혼들의 밤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십시오. 그 밤을 밝히고, 하느님의 불꽃으로 감사 주십시오.

658. 지식의 은사는 우리 가난한 지성을 밝혀주는 강력한 스포트  
라이트입니다. 그 새로운 빛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로운 색채를  
띠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감미로운 사랑의 발라드를 노래합니다.  
지식의 은사는 관상자들의 은사입니다.

659. 하느님의 영은 태우고, 변화시킵니다. 빛과 진리를 목말라하  
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가난한 영혼을 위해 다시 한번 새롭게 사  
랑을 창조해냅니다.